

FC서울 오스마르▶



용병 첫 전경기 풀타임? 오스마르 ‘위대한 도전’

29일 포항전 풀타임 팬 ‘대기록’ 달성

FC서울 외국인선수 오스마르(27·스페인)가 대 기록에 도전한다.

오스마르는 29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리는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5’ 38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와의 원정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면 ‘올 시즌 전 경기(38경기) 풀타임 출전’이라는 의미 있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골키퍼가 아닌 필드플레이어가 K리그 클래식(1부리그) 무대에서 한 시즌 전 경기를 풀타임으로 뛰 적은 2007년 장학영(성남일화) 이후 없었다. 외국인 필드플레이어로는 최초가 된다.

오스마르는 올해 팀에서 중앙 수비수와 수비형 미드필더를 번갈아 맡았다. 포지션의 특성상 경기가 많을 수밖에 없고, 체력소모도 극심하다. 그러나 빼어난 예측 능력을 앞세워 올 시즌 엘로카드를 2장밖에 받지 않으면서도 수비에서 제 몫을 다 했다. 또 스스로 몸 관리를 잘해 부상 없이 매 경기 90분 이상을 뛰었다. 2014년 서울에 합류한 오스마르는 성실함을 바탕으로 팀의 주축선수로 자리 잡았다. 수비수지만 패스 능력을 갖춰 팀의 공격작업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부주장까지 맡고 있는 그는 올 시즌 클래식 37경기에서 3골·1도움을 기록 중이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28일 ‘I-리그’ 시상식

최우수지역 경기도 안산시 선정

국민생활체육전국축구연합회 유청소년연맹이 28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15년 I-리그(생활체육 유청소년축구리그) 종합시상식’을 연다. 이번 행사에선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열렸던 I-리그 진행 결과와 다양한 부문의 심사기준을 토대로 수상자 및 팀을 선정해 시상한다.

2015년 I-리그 초등부 대상은 경기 남양주시 베스트FC가 차지했다. 전남 목포제일중학교와 경북 영주 청룡FC가 각각 중등부와 고등부 대상을 받는다. I-리그 최우수지역에는 경기도 안산시, 우수지역에는 인천 서구와 경기 시흥시가 각각 선정됐다. 또 I-리그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입상작도 시상한다.

2013년 엘리트선수 육성이 아닌 ‘즐거는 축구’를 모토로 시작된 I-리그는 출범 3년째를 맞은 올해 국내 최대 규모의 유소년축구리그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전국 권역별 23개 지역에서 총 700여팀, 9000여명의 유청소년이 참가했다. I-리그는 경기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며 축구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어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황선홍 감독, 세레소 오사카 감독직 거절

일본 닛칸스포츠는 26일 “세레소 오사카와 황선홍 감독의 협상이 25일 최종 결렬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세레소는 2년 연속 황 감독에게 감독직을 제의했다. 그러나 황 감독이 다음 시즌에는 사령탑을 맡지 않고 휴식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5년째 지휘봉을 잡고 있던 포항 스틸러스와 일찌감치 재계약을 포기한 황 감독은 29일 FC서울을 상대로 고별전을 치른다.

홍명보 전 감독, 항저우행 사실상 확정

항저우와 마지막 조율만 남아

중국 항저우 방문서 전반적 내용 교감
J리그 팀들도 러브콜 해도 ‘주가 폭등’

홍명보(46) 전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의 중국 슈퍼리그 항저우 그린타운행이 사실상 확정됐다. 그간 홍 전 감독에게 정식 제안을 해온 곳은 항저우 측의 이외에 알비렉스 니가타(일본) 등 2개 팀이지만 큰 변수가 없는 한, 항저우와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축구시장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들은 26일 “홍 전 감독을 영입하겠다는 항저우 측의 의지가 가장 강했다. 양 측이 교감을 시작했고, 전날(25일)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를 끝냈다. 이번 주 내로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귀띔했다.

1박2일간 짧은 항저우 방문을 마치고 26일 귀국한 홍 전 감독은 스포츠동아와의 통화에서 “(항저우 측의) 마지막 의견을 듣는 시간이었다. 모든 조건을 꼼꼼히 살피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해 사실상 마지막 조율이 이뤄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새로운 러브 콜…가장 적극적인 항저우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홍 전 감독의 현장 복귀에 힘이 실렸다. 중국이 원전지였다. 처음 등장한 팀은 슈퍼리그 광저우 푸리. 협상은 결렬됐으나 갑(甲·2부)리그 베이징 홀딩까지 감쪽 거론되며 한층 탄력이 붙었다. 이후 올 시즌 슈퍼리그와 갑리그 종료 시점인 11월초 수많은 팀들이 등장했다. 슈퍼리그 베이징 귀안과 갑리그 2위로 내년 슈퍼리그로 승격되는 허베이 쑹지 등이다. 특히 허베이의 의지가 아주 강했다. 그러나 기존 코치진의 반발 등 구단 내부 문제로 제안을 철회했다. 베이징 귀안도 한국인 지도자에게 관심이 컸고, 몇몇에게는 실제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무렵 항저우가 ‘홍명보 모셔오기’에 가

세했다. 현지 언론의 보도와 소식통에 따르면, 홍 전 감독은 연봉 120만~150만달러(약 14억~17억원)를 제시받았다. 이에 국내 여러 에이전시 관계자들은 “최근 중국 축구계 하마평에 ‘홍명보 감독을 포함해 한국 코치진을 구성하는 데 400만달러(약 46억원)가 제시됐다’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귀띔했다. 사실 여부를 떠나 그만큼 홍 전 감독의 주가가 중국 내에서 높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J리그의 관심도 상당했다. 이달 초 니가타 고위층이 방한해 미팅을 한 데 이어 쇼난 벨마레 또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특히 쇼난 벨마레는 홍 전 감독이 몸담은 팀이란 점에서 주목 받을 만했다.

●변함없는 가치

홍 전 감독의 명성은 아시아 전역이 인정한다. 4차례 월드컵 출전으로 가장 성공적인 현역 시절을 보냈고, 지도자로서도 풍부한 경험을 했다. 2006독일월드컵 코치로 지도자 첫 걸음을 내디딘 그는 이후 각급 연령별 대표팀을 이끌며 꾸준히 출중한 성과를 냈다. 비록 2014브라질월드컵은 아쉬웠지만, 2009년 U-20(20세 이하) 월드컵 8강과 사상 첫 올림픽 동메달(2012년 런던)이라는 값진 성과로 축구계의 찬사를 받았다. 더불어 강한 리더십으로 젊은 선수들의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내는 사령탑으로도 정평이 났다.

항저우에는 슈퍼리그 타 팀들에 비해 젊은 선수들이 많다. 인프라도 완벽에 가깝다. 그러면서도 대대적 투자를 공표한 상황이다. 성적까지도 잡겠다는 의지다. 지도력과 리더십 등 여러 면에서 ‘이미 검증된’ 홍 전 감독 영입은 항저우에게 최적의 카드가 될 수 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중국 슈퍼리그 항저우 그린타운 사령탑으로 현장에 복귀한다. 그동안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러브 콜이 쏟아져 관심을 모은 가운데 홍 전 감독은 장고 끝에 항저우행을 결심했다. 스포츠동아DB



한 장 남은 챔스리그 직행 티켓…수원이나, 포항이나

■K리그 클래식 마지막 라운드

2위 수원, 올시즌 1무2패 전복 부담
포항, 서울전 이겨야만 챔스 가능성

첼린지 PO 대구vs수원 대결도 후끈

이제 마지막이다.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5’가 28~29일 열릴 38라운드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전북현대가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아직 새 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32강) 직행 티켓과 플레이오프(PO) 티켓의 주인공이 가려지지 않아 끝까지 불꽃 튀는 승부가 기대된다. 클래식(1부리그) 11위 부산 아이파크와의 승강 PO를 향한 첼린지(2부리그) PO 경쟁도 흥미롭다.

●챔피언스리그 직행이나, 50% 확률이나

2위 수원삼성(승점 64)과 3위 포항 스틸러스(승점 63)의 운명은 어떻게 갈릴까. K리그에 배당된 챔피언스리그 티켓은 3.5장. 전북과 올 시즌 FA컵 우승팀 FC서울이 1장씩을 이미 챙겼고, 1.5장이 남았다. 수원이 포항보다 앞서있으나 최종전 상대가 전북이다. 상대전적에서 수원은 1무2패로 절대 열세였기에 부담스럽다. 반드시 이겨야만 포항-서울전 결과와 관계없이 챔피언스리그에 자력으로 진출할 수 있다. 물론 포항의 의지도 상당하다. 포항 사령탑으로 통산 98승을 거둔 황선홍 감독의 고별무대다. 제자들은 떠나는 스승을 위한 마지막 선물을 안기겠다는 각오로 땀을 둀었다. 포항이 서울을 꺾고, 수원이 전북에 비기거나 패하면 챔피언스리그 티켓 1장과 0.5장의 주인공도 바뀐다. 조별리그에 직행하면 더



수원 서정원 감독

포항 황선홍 감독

욱 긴 시간 동안 새 시즌을 준비할 수 있지만, PO로 밀리면 동계훈련 기간이 짧아져 알찬 대비가 어렵다.

●승강PO 티켓은 누가?

첼린지 정규리그 2위 대구FC는 28일 오후 2시 대구스타디움에서 수원FC와 첼린지 PO를 치른다. 수원은 25일 준PO에서 서울 이랜드FC를 꺾었다. 90분 이내 승부가 갈리지 않으면 대구가 승강 PO에 오른다. 그러나 변수가 있다. 핵심자들의 이탈이다. 대구가 큰 타격을 입었다. 올 시즌 10골을 뽑은 에델과 6골을 넣은 류재문이 경고누적으로 결장한다. 여기에 핵심 수비수 이종성도 출전할 수 없다. 역시 수원도 출혈을 감수해야 한다. 중원을 책임진 시시가 빠진다. 시시는 팀 공격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왔다. 대구 이영진 감독은 “아쉽게 우승을 놓쳐 분위기가 가라앉았지만 지금은 거의 회복됐다”며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역시 메시! 유럽선수 중 유니폼 판매 1위

■인조이 EPL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축구 스타는 누구일까. 유니폼 판매 순위를 통해 본 1위는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였다.

영국 내 최대 축구용품 판매 사이트인 ‘킷백(kitbag)’은 최근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축구선수들의 유니폼 판매 순위를 공개했다. 1위와 2위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소속이 아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소속의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였다. 둘은 최근 수년간 1·2위를 번갈아 차지하며 축구팬들로부터 꾸준히 사랑받고 있음을 입증했다.

1·2위보다 더 눈길을 끈 것은 3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신입생’ 펠릭스 데파이가 주인공이었다. 지난 여름 많은 기대를 받으며 PSV에인트호벤(네덜란드)에서 맨체스터 유

나이티드로 이적한 데파이는 등번호 7번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진 속에서도 그는 EPL 선수 중 가장 많은 유니폼 판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또 한번 화제가 됐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선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가 4위, 웨인 루니가 6위에 오르는 등 유니폼 판매 톱10에 3명이나 포함됐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CEO 우드 에드워드는 “유니폼 판매량 순위에 우리 선수가 3명이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구단 브랜드 가치가 상당하고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매출 역시 지난해보다 39%가 증가해 올해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첼시 에덴 아자르는 지난해 4위에서 한 계단 떨어진 5위에 이름을 올렸고, 메시의 팀 동료인 네이마르가 7위를 차지했다.

런던 | 허유미 통신원



FC바르셀로나 리오넬 메시가 유럽 최대 축구용품 판매 사이트가 공개한 ‘유니폼 판매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메시가 9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원정경기에서 득점한 뒤 환호하고 있다.

마드리드 | AP뉴시스